

누가복음 5-6
Tape #C2530
By Chuck Smith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인기가 점점 올라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밀치기 시작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들이 그를 둘러 싸기 때문에 여행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5:1),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때 그것이 나에겐 항상 감격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것이 다른 어떤일보다 중요한것이 되어 그것을 들으려고 서로 밀어 댁니다. 그러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5:1).

그것은 디베랴 바다로 알려졌고 또한 갈릴리 바다 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말하면 우리의 생각엔 항상 많은 잔물의 집합이 눈에 선합니다만 게네사렛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의 호수에 불과 합니다. 그것은 잔물이 아니라 민물이고 마실수 있는물 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갈릴리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5:2-3).

예수께서는 그를 에워싼 군중들을 피하기 위하여 시몬의 배를 이용하였습니다.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뒤에 있는사람들을 볼수 없기때문에 밀리지 않고 가르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 지역에는 갈릴리로 내려오는 경사가 있기때문에 해안에서 조금만 띄우면 원형 극장 처럼 되어서 가르치기에도 도움이 되며 무리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5).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우려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5:5).

시몬은 그의 명령에 공손한 태도로 일종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부입니다. 고기잡는법도 알고 언제 잡아야 하고 언제 잡지 말아야 하는것도 압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물고기는 호수의 더 깊은곳으로 옮겨 잡니다. 이 그물들은 깊은 물고기를 잡는것이 아니라 얕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들 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에 얇게 떠돌아 다니며 고기들이 배 근처를 돌아 다닐때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배를 중심으로 원형을 완전히 만들었을때 던졌던 그물을 끌어 올립니다. 그 그물은 깊은 물고기 잡는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시원 할때엔 얕은곳에서 물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저녁때가 고기 잡기에 좋은 시간 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 입니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돌연히 같은 지역에서 수고해 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자신의 노력과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노력에서 나타나는 대조를 잘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짜낸 노력에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낭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고안해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재정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인간들이 세운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있는것을 확실히 봅니다.

우리과 같은 교단에서 만든 프로그램 꾸러미로 여러해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빠르고 편리하여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프로그램이 우리 대신 다 생각해서 처리해주는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할일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원들의 취임식만 하면 되는것 이었 습니다. 물론 일년에 두사람만 임명하면 되었습니다. 봄에는 전도대회가 있는데 여름에 교인이 줄어들것을 방지 하기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든것이 다 준비 되어 있던 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각자가 한 페이지씩 맡아서 그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전화로 초대할 하는것입니다.

물론 전화해야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전화 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번호가 있는 고무풍선을 헬륨으로 채워 그것들이 어느곳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시의 상공에 띄웁니다. 그리고 번호들을 통에다 넣은 다음 제비를 뽑습니다. 헬륨에서 나온 번호가 제비를 뽑은 숫자와 맞으면 특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적힌 조그마한 쪽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숫자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을때 자신들의 숫자가 나와 특상이라도 받을까하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엔 물론 수송위원회도 구성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이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나가 그들을 픽업해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이런일들이 계속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재주를 부립니다.

그렇게해서 이 특정한 교회는 “어마, 우리가 이 큰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네, 우리가 전적으로 그 프로그램 에 들어가는군”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프로그램이 끝난지 육개월이 되어서 여러 목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지 육개월이 지났소. 당신네들이 평가할때 몇사람이나 교회의 영구적인 교인으로 추가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 85세 되는 한노인이 있는데 그분을 픽업하기위해 25 마일을 가야합니다. 그는 듣지는 못하지만 보통때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사람들 주위에 있는걸 좋아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추가된 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인을 늘리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수 천불씩 사용한 후의 결과 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봉사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봉사는 신이 납니다.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 하십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반- 언쟁 조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장하신다면 하겠습니까) 하겠나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다.

일이 잘 안되어 실망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으며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을때 즉시 “오, 그것도 해 봤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지시하에 시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지시하실때엔 차이가 납니다. 당신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당신의 봉사를 지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 하십시오.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5:6-7).

예수님의 명령을 단순히 순종함으로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성공이 왔습니다. 그 성공의 결과는 내게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때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정력과 노력을 다 쏟아 부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결과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잘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것도 있습니다. 그걸로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한 특권을 가집니다. 그것을 다른 여러곳에서도 실행할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한 세미나도 개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게하고 낚시에 먹이를 어떻게 놓는가를 배우게 하며 미끼를 더 매력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모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실때 당신의 성공 세미나를 개발하고 실제로 성취한것에 대하여 교만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 “주여, 나는 쓸모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와 같이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언제나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 사람은 교만해 질수가 없습니다. 주님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것은 항상 우리자신을 낮추게하는 경험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밧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5:8-11).

주님께서 저들이 종사했던 직업의 최대 수익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 그들에게 그 직업을 떠나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가득찬 고기로 말미암아 물에 잠기려는 작은 배들을 바닷가로 저어 나갔습니다. 모든 갈릴리 지방 어부들이 꿈꾸는 성공의 기점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 와 요한의 부르심에 대한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해변을 거닐때 그물을 낚는 어부들을 보시고 “오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고 하신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주님을 만났고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낯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불러 그들이 자기를 따르는 헌신을 마무리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5:12-13).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가지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한가지는 그들을 지시하여 많은 고기를 잡은것도 일종의 기적입니다. 불치병을 고친 기적도 있습니다. 옛적에는 문둥병이 질병중 가장 두려워 하고 싫어했던 질병중 하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그는 그 사회에서 배척받아 쫓겨 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과 접촉했다면 당신은 불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 셧습니다.

다른 경우에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때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시는일로 어떤 규범에 억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들은 빈번히 병고치는것이 무슨 공식안에 들어 있는것처럼 그 공식을 찾아 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 3:8).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방법이나 모형에 국한 시키지 않으십니다. 신학원에서 우리는 방법론의 과목을 택한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특정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역사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각개인 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방법과 이루어져야 할일을 조절하십니다. 나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뿐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그사람에게 손을 대시는것을 봅니다. 흥미있는 질문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 입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흔히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말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뜻이 하나님의 뜻을 능가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제가 원하는것이므로 당신의 뜻은 접어 두셔야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절대로 내뜻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목적, 즉 기도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주께서 그의 요청을 하신후에 그의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말씀 하신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을 하나님앞에 잔뜩 쌓아 놓은후에 이렇게 말하는것이 항상 지혜로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것을 행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때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만지셨으며 즉시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열 문둥병자의 경우에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디다. 그들이 갈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경우 그는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여러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나야 할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내겐 역사 하시지 않는구먼요” 하고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일을 여러분에게 관련을 지을때 여러분은 나의 경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추구하게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일을 하실때 어떤 틀에 맞추어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완전히 다른방법으로 역사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보인 반응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의 반응을 나타낼수도 있을것입니다.

간증 집회가 좋은점도 있지만 또 간증 집회에 항상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유사한것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간증집회의 강조점은 언제나 경험적이며 “이것이 내가 경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 내겐 그렇게 역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가지방법으로 다르게 역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을 따라 본을 받지못하게 하시려는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놀라운 한가지는 그 규례에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때 그가 사회에 환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할수 있는방법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일하실수 있는 공백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진실로 좋아합니다. 이것은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족에게로 돌아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불치병 입니다. 문둥병은 오늘날까지도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헨선병(Hanson's disease) 이라는 상태에서 머물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할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치병입니다. 그것이 그당시에 불치병인데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 하실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더 높은 법이 자연법을 초과하여 효과를 발휘하도록 여백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물론 제사장은 그 사람을 검사해서 흰 반점이 없는지 살펴보며 문둥병환처가 있었던곳에 새살이 나서 전체가 분홍색 인지를 살펴 봅니다. 그 사람을 칠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그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것이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두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비둘기 한마리는 죽여 피를 물과 함께 대야에 붓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비둘기는 이 대야에 있는 핏물에 잠겼다자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이 두번째 비둘기가 날아갈때 핏물이 날개에서 떨어지게되며 이것은 질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그 사람이 사회에 완전히 복귀되는것을 상징 합니다. 그 문둥병환자가 비둘기가 날아갈때 그가 사회에 완전히 복귀되리라는것을 깨달았을때 그가 느낀 감정을 상상할수 있겠습니까? 그는 싫어하고 고칠수 없는 질병때문에 소망없이 쫓겨났다는것을 늘 알고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례에 따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기적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에워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실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병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16 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5:16).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적했던것 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누가가 특별히 지적하는것입니다. 인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것이기에 때문에 누가는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을 다른 어떤복음에서 보다 더 많이 언급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주 예수의 기도생활에 약간의

통찰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내가 할수 있는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가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셨다면 우리가 기도없이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기도를 삶의 절실한 부분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주 필요한것이요 우리 삶에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하늘나라에서 궁금하게 여기는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적게 한다는것입니다. 천사들이 이것에 대하여 늘 토론할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재난과 모든 고통을 겪게되는 것을 그들이 지키면서 관찰할때 그들은 우리를 도우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시할때 우리는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넘어집니다. 내가 믿기에 천사들은 분명히 “저 바보가 언제 부를러는가? 그가 도움을 청할때까지 얼마나 더 계속할 작정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것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탄식 할것 입니다. 약하게 된 사람이 기도하지않는 신비로움은 이해가 안되는것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5:17).

이제 예수께서 그를 적대시하는 무리들인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들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부터 갈릴리까지 먼길을 왔습니다. 그들의 온 목적은 실제로 그를 받아 드리기 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사이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안위한 위치에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에게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올라와서 주의하여 그의 말을 들어본후 시험하여 그에게 반박하고 잘못을 지적하여 보여주고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일것이라는 생각을 일축 시키려고 그곳에 온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있는동안 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5:18-19).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볼수 있을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안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모였으며 무리들이 둘러 있는데 갑자기 지붕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뜯어낸후에 한사람을 노끈으로 달아내려 예수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그 친구를 도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를 침구에 운반해 왔으나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중단 시킬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예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5:20),

이 내려진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변에 믿는 친구들로 휩싸여 있는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20).

지붕위에 있는 이 친구들을 상상해보세요. “아니요, 주님, 우리가 원하는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걷는것입니다.”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 하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때 그들이 한 소경을 보고 “주님, 누구의 죄로인해 저가 장님으로 태어 났습니까?” 라고 물은 것을 기억 하십니까? 그들은 부모의 죄까지 믿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원인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 사람은...” 그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때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리라.” 그리고 난다음에 그사람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저가 왜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를 그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저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경으로 태어났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야 하므로 그가 그사람을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로 인한것이 아니라는것 외에는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경된것이 그들의 죄가 원인이 아님을 확신 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빈번히 병을 죄와 관련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분리시킬수는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때 “당신이 나쁜짓을 한것이 틀림없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슬픈일 입니다.

우리는 수년전에 특산이란 곳에서 목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안에 있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저녁에 무슨 죄를 저질고 있었든간에 그것을 고백 하는것을 돕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한달이 넘도록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이 직접 죄와 관련이 있다는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분리 되지않았습니다. 만일 질병이 죄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오늘저녁에 여기에 올만한 기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 당신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잔인합니다.

나는 죠니 에릭슨과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상태에 관한 가장 어려운일 중 하나는 그녀를 치유할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녀에게 안수하고 나서 “자 이제 일어 서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당신이 넉넉한 믿음을 가지기만 했다면 당신의 휠-체어가 필요 없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건 야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것은 그녀에게 고통만 더 할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죄책감을 가집니다.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거라든가 아니면 네 상태를 변화시킬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몇 사람의 위대한 성인들은 대단히 심한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질병은 그들의 깊은 인격을 이루게 했고 그들의 행함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 부터 먼저 처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체의 고침을 받는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옥에 가는것보다 천국에 가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것을 먼저 돌아 보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그들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들을 격노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미끼를 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기대 하셨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5:21)*

그들이 가정한것은 옳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 하실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정을 그들에게 실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놓으신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참람한 말을 한다고 생각한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네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심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었던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 51:4). 이리므로,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시고자 하셨고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덮을 거두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5:22-23).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기가 쉬울것입니다. 만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 볼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할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죄가 진실로 용서 받았다는걸 무엇으로 증명 할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참으로 권위가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증명할수 없습니다. 그 말의 권위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앓은뱅이 에게 “일어나 걸으라” 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아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5:24-26).

예수께서 저들에게 그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히 당신이 할수있소?” 라고 반응하도록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어느지역에 얼마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세금을 측정한후 그것을 세리에게 경매에 부칩니다. 그러면 그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할당된 세금만 바치면 됩니다. 할당된 세금을 초월하여 거두었으면 남는것은 세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할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여러가지로 세금을 부과 합니다. 실상은 로마정권 아래 생존하기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곡물이나 과일에 10% 기름이나 포도주에 20% 의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나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우리 정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읽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정이 우리의 사정보다 더 심했던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살인자나 강도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나 강도와 별로 다를바 없었고 그들은 확실히 도둑들이었습니다. 실상 정직한 세리를 찾아보기는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행하는것으로 잘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워진 한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직한 세리 였으므로 그를 칭찬하기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 추측에는 로마제국에서 단 한사람의 세리만이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기념비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로마정부를 위해 일하기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리들이 회당에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세리를 살인자와 도둑들과 같은 서열에 놓아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세리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5:27-29).

그는 모든 친구 세리들을 초청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세리들을 초청하여 함께 모이게했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가지게 될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일은 그의 동료들을 찾아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것이며 참으로 흥미 있는것입니다. 그에게는 세리들이 유일한 동료들입니다. 교제도 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들이 함께 모일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세리와 죄인들로 더불어 잡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가 있는 근처에왔을때 그는 세리에게 대이지 않으려고 그의 옷깃을 꼭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것은 세리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리에게 대었기때문에 부정하므로 집에 가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하루 동안 회당에 갈수 없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먹을때 같은 빵을 만지므로 그것은 더 나쁘다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졌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것은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밝히는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30-32).

예수께서는 그들이 있는곳에 가서서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든자들과 영적으로 병든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빈번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독된 병원처럼 만들기 시작한다는것입니다. 우리가 소독된 환경을 만들기때문에 죄인들이 와서 대단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소독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기때문입니다.

영국 만체스터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곳에서 갈보리채플과 연결되어 목회하는 제임스라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선술집에서 사역합니다. 그는 한주일에 서너번 선술집을 저녁에 찾아 갑니다. 술집에서 술취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일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는 훌륭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가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목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본을 받아 그들을 만날수 있는곳에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5:33-35).

그 당시에는 부부가 결혼하게되면 두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결혼전에 한주일과 결혼후에 한주일의 도합 두 주일간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모이기전 한 주일동안에 그들은 거창한 잔치를 한다음 부부가 결혼하여 결혼이 완성 되었습니다. 그후에 그들은 한 주동안 집을 개방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주동안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이 되며 그들의 특별한 친구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한주간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고통스러울것입니다. 아마도 그 기간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일을 설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오히려 열심히 일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한 주간동안 진짜 잔치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결혼 했습니다. 그당시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 후에 일하고 배신 당하는것이었습니다. ??????**

그 주간에 불려서 축하 잔치를 같이한 특별한 친구들은 모두 혼인집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혼인집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잔치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 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떠난후에 그들이 금식하게 되리라. 그러나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동안에 금식할자가 없나니 신랑이 함께있는것을 즐거워하러 함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5:36).

그 당시에는 옷이 줄어들지않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형겍으로 헌옷을 기워서 처음 그옷을 빨면 미리 처리하지않은 새 형겍이 줄어들니다. 물론, 많이빨았는 옷은 줄어들는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옷을 새 형겍으로 기운다면 옷을 빨자마자 새 천은 줄어들게 되며 더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 옷의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말라 그렇게하면 더 잘찢어질뿐이라” 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5: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스가 생깁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당장 발효하게되며 가스가 생깁니다. 물론 낡은 가죽부대는 오래 되었기때문에 딱딱합니다. 가죽부대가 딱딱함으로 인해 늘어날 여백을 주지 못함으로 가스가 발생하여 가죽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않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아직 부드럽고 유연성이있는 새 부대에 넣는것 입니다. 새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 비록 가스가 생기지만 가스가 생김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말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게 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5:38-39).

예수께서는 그가 반대하는 낡은 종교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무라도 견디지못할 정도로 무미건조하게된 종교제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있습니다. 낡은 옷에 새옷조각을 붙이는것같이, 혹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것처럼 옛제도를 개혁하려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개발하는것입니다.

낡은 전통에 익어있는 사람들은 새로운것이 나타날때 그들은 항상 당황하고 화를냅니다. 그들은 “오, 옛것이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이런것을 자주 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은 당장 거절당하는 일은 빈번합니다. 사람들이 옛전통에 빠져 있어서 새로운것이 나타나면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낡은 부대는 터집니다.

척 1:1 “융통성 있는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러지지 않을것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융통성이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에따라 점점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가려는경향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 “하나님, 그런면에서 늙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일에 나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볼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새로운일을 시작하시기를 몇번이나 원하셨으며 조직된 제도에서 벗어 나기를 몇번이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로운 부대를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낡은 제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빈번히 그들의눈으로 보는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일을 받아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조를 따르지 않기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본에 맞출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새 포도주를 위해 새 부대를 개발하십니다.

Chapter 6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6:1)

이제 주께서 안식일에 한 두어가지 경우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사람들인가를 알았고 그들은 예수의 잘못을 찾아서 그가 하는일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다음 예수께서 세리들 과 함께 잡수시는것을 정죄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정죄하는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자네들은 낡은 부대에 속했어. 그래서 자네들에게 새 포도주를 줄려고

하지않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새 체계를 만들려 하는게 아닐세.“ 그리고 누가는 안식일에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닥쳤던 두어가지 경험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일후에 두번째안식일에 (6:1a)

날짜를 표현한방법이 흥미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첫번째 유월절 이후 두번째 유월절에 일어난일입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때 (6:1b)

작은 밀알을 옥수수 알처럼 말을 하지만 밀알은 더 작습니다. 그들은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6:1c).

오월말이면 밀알이 익어 마르게됩니다. 갈릴리 지방은 밀을 많이 생산하고 또 잘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어집니다. 겨울 밀이 잘자라며 이 밀이삭을 잘라 손에 비빈 다음 손을벌리고 흙 불면 겨는 다 날라가고 알맹이만 남게되며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걸 씹으면 껌이 되고 하루 종일 씹을수 도있고 삼킬수도 있으며 그것은 건강식입니다. 참으로 신선한 햇곡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절기쯤 이스라엘에 갈때 예수의 제자들이 한것처럼 밀밭을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후에 붙어서 그것을 먹는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건강식이며 당신의 몸에 좋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것 입니다. 만일 배가 고프거든 밭에 가서 필요한 만큼 먹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낫을 가지고 이웃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필요한 만큼 싹껏 먹을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 손에 비비는것은 합법적인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수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며 짐도 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밀의 무게는 짐을 지고 가는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의 잘못을 책잡기 시작 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6:2-4).

다윗은 사울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먹을것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여기 있는 진설병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진설병을 먹는것은 불법 이었습니다. 12 덩어리의 진설병은 12 지파를 상징 하는것으로 여호와 앞에 놓았던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12 지파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것이며 그것을 칠일간 두었다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 왔고 그는 시장했으며 그와 같이한 무리들도 시장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만한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때 다윗은 “좋습니다, 그러면 진설병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한후에 그는 진설병을 먹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은 합법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것은 법을 초과 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것,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을 지나갈 때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윗이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법을 초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나는 안식일도 다스리느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으며)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6:5-6).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으며 오직 누가만이 그것이 오른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억 하십시오. 누가는 의사였음을. 그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문제의 자세한 것에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의 오른손이 말랐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6:7-9)*

만일 당신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언제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생명을 멸하는 것이 여태까지 합법적인 때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 (기쁨이 아닌) 가 가득하여 (6"10-11a);

그들은 화가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6:11b).

예수께서 정말 그들을 화나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우스꽝 스럽게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너무 우스꽝 스러워 도저히 그 위치를 지킬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때로 맞았다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정신이 돌아 버린 것이죠. 당신의 위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으므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을 주목 하십시오. 그 사람은 언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손이 말랐기 때문에 뻗칠 수 없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나는 이 손을 여태까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과 언쟁하며 “선생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되는걸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와 언쟁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께서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고 그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 주께서는 당장 그에게 순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서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불가능한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온전하게 될수 없습니다. 내 육신을 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강하라” 고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연약함속에 덩굴면서 이 비참한 과정을 겪고 있는 제가 강해 질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꾸 합니다. 예수께서는 “승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승리를 원하는지 주님이 생각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는 않고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 순간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주실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직 순종하려고 하기만하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6:12a),

누가는 다시 예수의 기도생활에 관해 통찰해봅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6:12b).

여기 기도실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남성들은 매일밤에 누가 함께 계시는줄 알죠? 주님 이십니다. 그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밤을 지새어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동무입니다. 그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이튿날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디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고 불리울 12제자를 뽑기 위한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본이고 우리가 본 받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기도에 시간을 사용할때 그러한 결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있는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6:14-17).

이제 주께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남쪽의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북쪽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러라 (6:18-19).

흥미있는것은 물론 여기있는 이 선언은 의사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는것입니다. 능력이 예수로 부터 나갔다고 의사인 누가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흥미롭게하는것은 이 사건이 그가 밤을 지새며 기도하신 후에 일어 났으며 이러한 정도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나와 옷자락을 만졌습디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6:20)

여기서부터 6장의 끝까지는 축약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훨씬 더 길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충분히 믿지 못할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여러가지 요점을 다른 곳에서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주장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6:20).

당신이 이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이땅에서 가난하지만 당신이 천국에 속했으니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6:21-23).

어떤 사람이직장에서 그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욕하고 궁지에 몰릴때 그것을 기뻐하며 뛰었다는사람을 나는 본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망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패배당하고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 이번주에 겪은 어려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거나 “내 상관은 정말 화가 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당신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찢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6:23-28).

이제 예수께서 갑짜기 여러가지의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나는 언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 합니까? 나로선 원수를 사랑할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싫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드려질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화나게 만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언쟁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명령들을 가지고 언쟁을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언쟁을 하는동안에는 언제나 내게 마른손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보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기 원합니다. 내가 보복을 시도할때 나는 위궤양으로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순종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할수없어요.” 만일 내가 자원하면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할일은 기꺼이 주님께 순종 하려는것입니다. 주님과 시비 하지말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할때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할수있는 역량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것입니다.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6:29-31).

많은 선생들이 이것을 부정형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대접받기를 원치않는것을 어떤사람에게도 행치말라.” 그것은 흔히 있는일 입니다.

할랄, 공자, 그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정형이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것 즉 당신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말라.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할 좋은 법칙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부정형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치지않도록 그 사람을 치지 않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것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당신이 실수했을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히 이해하고 동정해 주기를 바랄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을때 당신도 그렇게 대해주고 이해하고 동정해 주어야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대접 받기를 원하는데로 그들을 대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부정형에서 긍정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금하는것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6:32-36).

다시 우리 스스로가 언쟁하고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쟁 하기보다는 차라리 순종하는것을 선택 합시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6:37-38).

주신 법을 들으세요. 주라: 그것은 원칙이요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연법 지키는것을 배웠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법칙도 배워야합니다. 이것은 영적법칙 입니다. 그것은 잘 맞습니다. 당신이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것은 압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38).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되어주는 그대로 당신에게 되어 줄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이 주실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6:39-41).

예수께서 미소를 지우면서 이 말씀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장면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 하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아주 훌륭한 일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사람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합니다. 주님이 “너의 행실을 깨끗케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6:42-44).

나가서 선인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또는 짙레 (혹은 굴러 다니는 잡초) 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6:44).

모든것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6:45).

우리가 해야할 모든 일은 곁에 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안되어 그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듣는것은 열려있는 구정물 웅덩이 곁에 서 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것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난후에 예수께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6:46)

주님이란 명칭은 주인을 말하며 그것은 내가 종임을 암시합니다. 나는 종이며 그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노예가 되는것이 무엇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소유할수 없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속물이 되는것입니다. 순종하는데 요구되는것은 시킨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묵묵히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미국사람들은 이것을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오 주님” 하고 부르기는 쉽습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것은 참으로 모순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순종에 대하여 고려해야할 여러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자가 되지말라”(약1:22). 우리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상적인것을 읽을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가 그와같이 변하라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는 그걸 할수 없어요. 오, 주님, 저는 그것을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반응은 “내가 명한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 라고 부르느냐? 내가 명한것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진실로 너의 주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자신을 점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때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경향이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것은 하고 하기 싫은것은 버립니다. “오, 이건 좋아. 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사람들 마다 해석을 달리 하는것 같애, 나의 해석은 달라.” 그러나 내가 주님 이란 호칭을 사용한다면 그의 계명에 주의 해야합니다. 적어도 기꺼이 순종해야합니다. 그 계명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순종 하는것을 택하십시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6:47-48).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기초를 세우는것은 중요합니다. 아주 얇은 기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건물을 기초도 없이 세웁니다. 감정에 세우기도 하고 경험에 세우기도하고, 감격스러운 시절에 세우기도 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때 반석에 단단한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집은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질것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다 폭풍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문제들과 시련과 고난에서 면제되리라는 약속은 하시지 않았습니니다. 모두에게 시험은 똑같이 옵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수 없는 어려운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현재의 모든 사정을 설명 하려고 노력합니다. 폭풍이 오며 폭풍이 맹열히 두드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훌륭한 기초를 놓지 않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휩쓸려 갈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 께서 명령 하신것을 순종하는것 즉 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겠는지를 주님과 시비하거나 핑계 대지말고 그 명령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으로 핑계대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그거 할수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기꺼이 순종 하려고 할 그순간에 순종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주실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 공부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돌아가 다시 사용할때 그것들이 화가 나고 우리를 감옥에 넣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여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 사람이 되며 원하시는것을 행할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그것을 포용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소서. 우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주님이 축복 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사랑과 성령과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이 그의 뜻과 계명을 행하며 나아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